



왼쪽부터, 강태욱 차장, 권순중 울산영업소장, 김영진 지점장, 홍재기 차장, 고은애 주임, 한승진 부지점장, 김영숙 과장

화창한 봄날

춘계체육행사를 마치며

- 부산·경남지점 고은애

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니 무척 화창했다. 5월은 '여행의 계절'이라는 말에 걸맞는 날씨였다.

5월 15일. 오늘은 우리지점이 1박 2일 여정으로 단합대회 겸 연수를 떠나는 날이다.

입사해서 부산·경남지점에 근무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여행은 두 번째를 맞는다. 친구나 가족이 아닌 회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여행, 좀 어려운 분위기를 걱정할 수 있지만, 첫 여행에서 느꼈던 것처럼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는 기대에 마음 한

견은 들떠있었다. 게다가 청산도라는 멋진 섬을 가는 거니까.

아침 7시가 되자 모두들 예정한 장소에 모였다. 우리 일행은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을 포함해서 총 8명이었다. 매일 아침 회사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야외에서 여행복 차림으로 인사를 나누니 새롭다. 모두들 밝은 얼굴이다. 단합대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즐거운 마음으로 단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여행은 여행사에서 마련한 패키지였다. 그래서 버스에는 우리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득했다. 이들 모두는 앞으로 1박 2일 동안의 여행 동반자들이었다.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옷차림도 분위기도 모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버스에는 5월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여행은 이래서 좋은 것인가 보다.

첫 도착지 진도에 내려 우리는 일정대로 진돗개 공연, 판소리 공연 등 지역 문화체험시간을 가졌다. 유명한 진도 홍주도 한번 시음해보고, 때가 되면 마치 흥해처럼 갈라진다는 진도 바닷길도 구경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리 일행들과의 시간이었다. 근처 수산시장에서 산 싱싱한 낙지·전복을 앞에 두고 이어지는 우리들의 담화 시간, 나는 우리 회사 동료들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따뜻하고 또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은 서로의 내면에 한 발짝씩 더 들어갈 수 있었고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다. 아마 그분들도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을 텐데, 부디 그것이 좋은 모습이었기를...

다음날,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청산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완도항에 내렸다. 그런데, 와! 정말 사람이 많았다. 청산도는 서편제, 봄의 왈츠 등의 촬영지가 되면서 유명세를 단단히 타고 있었다. 우리는 예정보다 1시간 20분이나 더 기다려서 배를 탈 수 있었다.

바다내음 가득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선상에서의 시간, 나는 물론 우리 일행과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는 '상쾌함'이란 글자가 써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지나다니는 낯선 사람 모두가 친근하게 보였다. 우리 일행이 더욱 가까게 느껴진 건 두 말할 나위 없었다.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달려가서 청산도에 도착했다. 영화촬영지를 구경하고, 신기함이 가득한 섬마을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싱싱한 해삼을 즉석에서 썰어 먹고.. 그런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 건지... 어느새 1박 2일의 여정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완도를 거쳐 저녁 10시쯤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내일이면 다시 보게 될 얼굴들, 그런데 왜 이렇게 헤어지기 싫은 걸까? 1박 2일 동안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를 보다 잘 알게 된 것 같았다.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들러 국수와 소주를 놓고 여정의 마지막을 정리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나는 지점 직원들과 더욱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직장생활에 대한 활력과 동기를 키울 수 있었다. 1박 2일 동안 거창한 구호같은 건 외친 적이 없지만 우리의 단합대회는 정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